

6. 15 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여러 단위들을 현지지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과학자 휴양소 건설장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과학자 휴양소 건설장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숲이 무성하던 곳에 굴조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르고 화선선전, 화선선동으로 들썩이는 건설장을 보시며 조선인민군 제267군부대의 전투장은 분위기부터 마음에 든다고, 역시 근위부대, 영웅부대답다고 하시면서 못내 민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건설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휴양소를 손색없이 꾸리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제267군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 과학자 휴양소를 일떠세우면서 건설에서 새로 운 비약의 속도를 창조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런 속도면 당에서 과학자들과 약속한 날자에 휴양소를 완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제267군부대는 당에서 맡겨주는 그 어떤 임무도 최상의 수준에서 결사奉行하는 최고사령관의 전투부대, 힘있는 척후대, 우리 나라의 건설교육자부대라는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제267군부대가 조선로동당의 의도를 실천으로 빛들어감으로써 과학자 휴양소 건설을 훌륭히 완공하여 과학자들에게 안겨주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풍문술 공장을 현지지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풍문술 공장을 현지지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풍문술 공장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풍문술 공장을 현지지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물려과 공정, 출생산 및 포장공정, 저장고를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 및 현대화 정형을 구체적으로 묘해하시였다.

작업반에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흐름선을 타고 쉬임 없이 생산되거나오는 각종 술들을 보시고 병배렬과 세척, 술주입과 병마개봉함 등 모든 공정이 고도로 자동화되었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제품진열실에 들리시여 풍문술과 다른 술들 파의 품질비교 분석표도 보아주시고 공장에서 생산한 여러 가지 술의 주정과 용량, 질에 대해서도 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술공장으로서는 명당자리에 자리잡고 있는 공장, 인민군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공장에서 세상에 놓고 자랑할만 한 조선의 명주가 꽂나와야 한다고 다시금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공장현대화를 제기 일에 끌내고 생산성 상화를 계속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공장에 어려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실천으로 받아들여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허철용이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지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먼저 새로 건설한 과학기술보급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과학기술보급실을 훌륭히 건설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풍문술 공장을 돌아보시면서 공장에서 당의 의도에 맞게 과학기술보급실을 훌륭히 건설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풍문술 공장을 돌아보시면서 공장에서 당의 의도에 맞게 과학기술보급실을 훌륭히 건설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풍문술 공장을 돌아보시면서 공장에서 당의 의도에 맞게 과학기술보급실을 훌륭히 건설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날 공장의 노동적위군녀성고사총중대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중대의 지휘관들과 대원들이 조국수호정신으로 무장하며 전투동원준비를 더욱 튼튼히 다지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비롯하여 민방위무력의 강화발전에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중대예술소조공연을 보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중대지휘관들과 대원들의 사상정신 상태가 아주 좋다고 하시면서 서로 합심하여 중대를 높여

적위군의 본보기단위로 더 잘 꾸림으로써 조선로동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믿음직하게 받아들여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기술적으로 완성된 우리식의 광학측정기재들을 더 많이 생산하며 당의 최첨단돌파사상을 높이 받들고 주체적이며 현대적인 새 제품개발과 생산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루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관유리공장을 현지지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을 자주 찾아오시겠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을 안고 왔다고, 공장의 로동계급이 나라의 경제발전에 절실히 필요한 광학유리제품을 생산보장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지난 30여년간 높은 생산성으로 당을 받아들여왔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공로를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 새로 생산하고 있는 광학측정기재들의 성능을 묘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 새로 꾸린 도금생산공정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4개의 흐름선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도금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주의깊게 보시며 노동자들을 유해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였다고, 유해로동이 신선놀음이 되었다고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날 공장기동예술선동대의 공연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로동계급의 심정을 그대로 반영한 진실하고 선동적인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치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기술적으로 완성된 우리식의 광학측정기재들을 더 많이 생산하며 당의 최첨단돌파사상을 높이 받들고 주체적이며 현대적인 새 제품개발과 생산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루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천마전기기계공장을 현지지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백두산 철세위인들의 현지지도 표식비에 대한 해설을 들으신 다음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심장마다 새겨안고 떨쳐나선 공장의 로동계급은 부단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헤쳐나가며 맡겨진 생산파제를 어김없이 수행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정형을 묘해하시고 현대화를 위한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의 로동계급이 기업소를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와 사회주의 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일신시키며 현대적인 전기기계들을 꽁꽁 생산함으로써 부강조국건설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허철용이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지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천마전기기계공장을 현지지도 하시였다.

## 피라는 노력의 산물, 그 뿐인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보고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다.

«같은 노래도 모란봉악단에서 형상하면 완전히 새로운 노래가 된다.», «모란봉악단 배우들은 악단에 오기 전부터 뛰어난 기량의 소유자들이었던 것 같다.» …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기량수준과 배우생활 경향 같은 것이 어린 음악계의 조 학도들이었다. 서로 다른 곳에서 모여오다니니 마음의 안장을 맞추지 못했고 높은 수준에서 편곡된 악보를 도저히 연주할 수가 없어 저도 저도 모르게 당황해지던 그들이었다. 그래서 열방을 폐고 어도 자꾸만 시간이 모자라는 것만 같아 하루에 2~3시간 밖에 빠져나오면서도 기량 훈련을 하고 공연준비를 완성하였고 그 과정에 그들은 온갖 열정을 오직 음악이라는 거대한 세계에 깡그리 쏟아붓는 노력가들로 자라나게 되었다.

하나면 어떻게 되어 몇년전까지 만 해도 나어린 음악소녀에 불과했던 그들이 현신적인 정열가, 온갖 열정을 음악세계에 깡그리 쏟아붓는 불굴의 노력가들로 자라나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한편의 명작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바치려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애국충정의 세계가 그들의 심장속에 품어迸기 때문입니다.

사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모란봉악단을 내오도록 하시고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지도해 주신 시기는 그이께서 있어서도, 인민들에게 있어서도 어려운 시기였다. 그이의 어깨우에는 중하가 지워져 있었고 그 어느 부문, 그 어느 분야에서나 그이의 지도와 가르침을 바라고 있었다. 하기 때문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모란봉악단 지도에 바친 시간은 이론 세벽과 명절날, 일요일이 더 많았다. 하루종일 국사를 돌보시고 깊은 밤에 나오신 그이를 새벽녘에 바래드렸는데 한낮에는 벌써 전선에 계신다는 소식을 전해들으면서 눈물을 머금던 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었다. 정

## 절세위인의 음악세계에 매혹되어 (2)

말이지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루하루는 사람들이 믿지 못할 만큼 말그대로 불철주야의 혼속이었다.

모란봉악단 단장 현송월은 그때의 자기들의 심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신파로 고를 제 눈으로 뚜렷히 보았기에 우리는 훈련과 제를 못하고서는 잠자리에 수도 없었고 멋들어진 곡상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인민을 위해 끝없는 사랑과 헌신을 바쳐가시는 원수님의 멀고 험한 강행군길을 생각하며 성악훈련을 할 때에도 그이 앞에 선 심정으로 노래를 불렀고 수도와 멀리 떨어진 북방의 한글에서 공연을 할 때에도 그이께서 보아주신다고 생각

했으며 그의 뜻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면서 하루 하루의 훈련, 한차례 한차례의 공연에 빠짐을 들이고 괴롭게 바쳤던 것이다.

피라는 노력도 위대한 사랑에 뿌리를 둘 때 발휘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걸음 따라 보폭을 함께 한 모란봉악단 창작가, 예술인들의 심장속에 간직된 불변의 진리이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화 같은 사랑으로 짐장을 불태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모시기로 모란봉악단 창조집단은 앞으로도 인민을 위하

여 예술창작창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릴 것이다.

### 문화예술의 천재

이번 대회에서 토론한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이 한결같이 터친 격찬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야말로 문학예술의 천재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노래의 꼭은 좋은데 가수가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제한성이 있어 제목도 고쳤고 가사도 다시 썼다고 하시면서 그 가사를 가지고 학창단에서도 형상하고 모란봉악단에서도 형상하면 멋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즐겨부르는 노래 《조국찬가》가 어떻게 되어 우리 나라의 제2의 애국가, 시대의 명곡으로 터여 날뛸 있는가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조국찬가』의 가사는 길지

지 못하다. 이에 대해 설레성 공

훈국가 학창단 창작실장은 자기가

직접 체험한 사실을 감명깊게 토

론했다.

지난해 9월 공훈국가 학창단에서 새롭게 창작한 노래 《인민공화국 찬가》를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노래의 꼭은 좋은데 가수가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제한성이 있어 제목도 고쳤고 가사도 다시 썼다고 하시면서 그 가사를 가지고 학

창단에서도 형상하고 모란봉악단에서도 형상하면 멋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노래 《조국찬가》의 가사에 인

않았다. 그러나 담고 있는 내용

과 폭이 거대하고 그에 비해 표현은 작고 소박하여 부드러운 친화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

지 노래는 일상에 사람들의 가슴 속에 스며들었고 찬란의 목소리는 그 어디에서나 터졌다. 어머

니의 손목을 잡고 유치원에 가는 아이들도 《사랑하는 어머니》가 첫걸음마다 떠여준 정든 고향집 땅락 조국이여 《라》를 불렀고 기

대앞의 생산자도 《창공》에는 우

리 국가 무궁도록 나봇기고 이

땅에 선 모든 꿈 이루어지리》라

고 터졌다.

그리고 터졌다.</

얼마전 사업용무로 《한국》을 다녀온 이웃집 친구를 만나 그곳의 정세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다.

초점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이야기였다. 하기야 여기 카나다땅에서도 동포들끼리 만나면 전부 《세월》호 소리뿐이다.

객관적으로 보아도 《세월》호 참사는 이남당국의 무대응, 무책임, 무능력으로 인해 침몰하는 배와 함께 바다물속에 빠진 300여명의 사람들을 그도 대다수 어린 학생들을 눈을 편히 끌고 보면서도 단 한명도 구원하지 못한 상상을 초월하는 인재이고 판례였다.

생의 끝이고 회망이었던 소중한 아들딸들이 침몰된 배안에서 손톱이 빠지고 손가락이 부러지도록 안타까이 몸부림치며 치열하게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해야 했던 부모들의 그 심정, 죽음을 앞둔 몸부림 속에 아이들이 혼신을 다해 써보냈을 《엄마 사랑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아온 부모들의 그 비통함을 생각하면 저절로 숨이 차오르고 나도 모르게 눈가에 이슬이 맺히는 것을 어쩔 수 없다. 그 슬픔이 얼마나 커으면 자식없는 생을 포기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유가족들까지 있었겠는가. 아마도 그래서 세상에서 표현력이 가장 풍부한 조선말에 조차 파부나 홀아비, 고아라는 말은 있어도 자식없는 부모를 가리키는 말은 없는것이 아닌지.

그 어떤 보상도, 사포치는 추모의 눈물바다로 살점처럼 귀한 자식들을 잃은 부모들의 그 크나큰 비애와 슬픔을 덜어주지는 못 하리라.

《정부》는 살인마. 내 아이를 살려내라》고 웨치는 유가족들의 분노와 항의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허나 그속에서도 《정부》에 쓰리는 여론의 비난을 땀대로 돌리며 유가족들의 쓰라린 마음속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비벼대는 것과 같은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행위들이 빚어졌다.

그럼에 진실을 바라는 의혹의 눈초리들은 그가 누구이든 《종북》 세력으로 물려 여지없이 매

# 밖에서 본 《종북》 소동

자 《북소행》 설을 내돌리는가 하면 민심의 분노를 놓고 터무니없이 《북》의 지령을 받는 좌파들의 준동》이니, 《실종자가족행세를 하는 종북주의자들의 선동》이니 하고 떠들어댔다.

인터넷상에서는 분노한 유가족들의 항의행동을 두고 《미개한 국민》이라느니, 《전문시위군》이니 뛰어 하다못해 《종북》으로 매도하고 어른물이 하는 것과 같은 실로 믿기 어려운 잔인한 장면들이 펼쳐졌는가 하면 슬픔과 비애에 잠긴 실종자가족들이 모여있는 진도실내체육관 주차장에 왕창같이 《종북척결》 구호를 내건 차가 등장하는 두눈을 의심하는 광경도 벌어졌다.

심지어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리봉과 대기의 노란색 까지도 《종북》 표현으로 매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 그런가하면 제2의 《천안》호 사건으로 불리우는 무인기 사건이 터졌을 때는 《북소행》으로 억지다짐으로 몰아붙였고 그러한 당국의 무분별한 처사에 의견을 내놓았던 한 애당의 원이 보수 세력에 순식간에 《종북》으로 물리우는 확당한 일도 벌어졌다.

내부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현상도 저들에게 불리한 것이라면 모두 북과 억지로 결연시키며 《종북》 소동을 벌리는 이남당국의 대도와 차도를 보면 그들의 뿌리깊은 동족에 대한 대결판념이 《유신》 독재시기나 그 후에 가 집권한 오늘이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금 뚜렷이 느끼게 된다.

아울러 이 남당국이 벌리는 《종북》 소동은 동족대결을 추구하는 것과 함께 《정권안보》를 위한 《만능의 열쇠》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이다.

날로 더욱 로끌어되는 현 남조선 보수집권세력의 반인민적 탄압파 《종북》 소동은 오늘날 남녀민중의 초보적인 알 권리, 말할 권리마저 완전히 짓밟아버렸으며 오로지 순종하고 감수하는 것과 같은 사람들은 그 조사결과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럼에 진실을 바라는 의혹의 눈초리들은 그가 누구이든 《종북》 세력으로 물려 여지없이 매

도되었으며 오늘까지도 《천안》호 사건의 진상은 혹막속에 묻혀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최근에는 외교문서까지 위조해가며 《유신》 독재시기를 방불케 하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조작해 냈으나 그 진상이 여지없이 드러나 세인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그런가하면 제2의 《천안》호 사건으로 불리우는 무인기 사건이 터졌을 때는 《북소행》으로 억지다짐으로 몰아붙였고 그러한 당국의 무분별한 처사에 의견을 내놓았던 한 애당의 원이 보수 세력에 순식간에 《종북》으로 물리우는 확당한 일도 벌어졌다.

신파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와

방법으로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한갓 시녀, 민심을 기만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 거짓보도와 진실은폐, 《정부》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는 형편이다.

신파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와

방법으로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한갓 시녀, 민심을 기만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 거짓보도와 진실은폐, 《정부》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는 형편이다.

신파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와

방법으로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한갓 시녀, 민심을 기만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 거짓보도와 진실은폐, 《정부》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는 형편이다.

신파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와

방법으로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한갓 시녀, 민심을 기만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 거짓보도와 진실은폐, 《정부》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는 형편이다.

신파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와

방법으로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한갓 시녀, 민심을 기만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 거짓보도와 진실은폐, 《정부》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는 형편이다.

신파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와

방법으로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한갓 시녀, 민심을 기만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 거짓보도와 진실은폐, 《정부》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는 형편이다.

신파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와

방법으로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한갓 시녀, 민심을 기만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 거짓보도와 진실은폐, 《정부》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는 형편이다.

신파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와

방법으로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한갓 시녀, 민심을 기만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 거짓보도와 진실은폐, 《정부》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는 형편이다.

신파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와

방법으로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한갓 시녀, 민심을 기만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 거짓보도와 진실은폐, 《정부》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는 형편이다.

신파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와

방법으로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한갓 시녀, 민심을 기만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 거짓보도와 진실은폐, 《정부》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는 형편이다.

신파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와

방법으로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한갓 시녀, 민심을 기만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 거짓보도와 진실은폐, 《정부》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는 형편이다.

신파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와

방법으로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한갓 시녀, 민심을 기만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 거짓보도와 진실은폐, 《정부》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는 형편이다.

신파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와

방법으로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한갓 시녀, 민심을 기만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 거짓보도와 진실은폐, 《정부》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는 형편이다.

신파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와

방법으로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한갓 시녀, 민심을 기만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 거짓보도와 진실은폐, 《정부》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는 형편이다.

신파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와

방법으로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한갓 시녀, 민심을 기만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 거짓보도와 진실은폐, 《정부》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는 형편이다.

신파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와

방법으로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한갓 시녀, 민심을 기만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 거짓보도와 진실은폐, 《정부》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는 형편이다.

신파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와

방법으로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한갓 시녀, 민심을 기만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 거짓보도와 진실은폐, 《정부》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는 형편이다.

신파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와

방법으로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한갓 시녀, 민심을 기만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 거짓보도와 진실은폐, 《정부》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는 형편이다.

신파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와

방법으로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한갓 시녀, 민심을 기만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 거짓보도와 진실은폐, 《정부》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는 형편이다.

신파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와

방법으로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한갓 시녀, 민심을 기만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 거짓보도와 진실은폐, 《정부》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는 형편이다.

신파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와

방법으로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한갓 시녀, 민심을 기만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 거짓보도와 진실은폐, 《정부》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는 형편이다.

신파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와

방법으로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한갓 시녀, 민심을 기만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 거짓보도와 진실은폐, 《정부》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는 형편이다.

신파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와

방법으로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한갓 시녀, 민심을 기만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 거짓보도와 진실은폐, 《정부》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는 형편이다.

신파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와

방법으로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한갓 시녀, 민심을 기만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 거짓보도와 진실은폐, 《정부》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는 형편이다.

신파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와

방법으로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한갓 시녀, 민심을 기만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 거짓보도와 진실은폐, 《정부》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는 형편이다.

신파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와

방법으로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한갓 시녀, 민심을 기만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 거짓보도와 진실은폐, 《정부》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는 형편이다.

신파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와

방법으로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한갓 시녀, 민심을 기만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 거짓보도와 진실은폐, 《정부》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는 형편이다.

신파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와

방법으로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한갓 시녀, 민심을 기만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 거짓보도와 진실은폐, 《정부》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는 형편이다.

신파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와

방법으로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한갓 시녀, 민심을 기만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 거짓보도와 진실은폐, 《정부》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는 형편이다.

신파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와

방법으로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한갓 시녀, 민심을 기만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 거짓보도와 진실은폐, 《정부》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는 형편이다.

신파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와

방법으로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한갓 시녀, 민심을 기만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 거짓보도와 진실은폐, 《정부》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는 형편이다.

신파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와

# 지방자치제 선거를 앞둔 남조선 정국

지방자치제 선거가 박근혜 남조선 정국이 혼란스럽다. 알려진 것처럼 지난 4월 16일 남조선에서는 400여명의 승객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호가 침몰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런 데 보수당국의 무능과 무대응으로 30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으로써 그저 대형 사고가 아닌 세인을 놀래우는 특대형 사고로 되었다.

이로 하여 지방자치제 선거를 미루어야 한다는 이러한 의견들이 제기되었지만 선거는 계획대로 6월 4일 진행되게 되었다.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는 려객선 침몰 사건을 계기로 현 집권자에 대한 환상과 기대가 물먹은 담벼름 허물어지고 「박근혜 정부는 살인마이다」, 「더 이상 기대 할 것 이 없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항의의 목소리가 도처에서 강하게 울려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책임자처벌』, 『내각총사회』와 함께 『박근혜 퇴진』을 주장하는 대중집회와 『시국선언』 발표, 초불시위, 폐불행진, 삽발투쟁, 청와대 기습시위들이 전 지역에서 막대한 규모로 진행되었다.

그동안 보수세력들이 그 어떤 사태에도 변동이 없는 『천벽』 등 방송 3사가 여론 조사기관 세곳에 의해 같은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이번 선거는 「세월호」 호 참사로 현 당국이 최악의 위기를 겪는 속에서 진행되게 된다.

집권한 2년도 안되는 현 남조선당국이 위기를 겪는 것은 비단 「세월호」 호사건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현 당국이 정보원과 군싸이 버사령부, 경찰과 같은 권력을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권력을 쥐어놓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게 권력의 자리를 차지한 후 보수집권세력이 한 행동이라 저들이 저지른 특대형 범죄를 가리기 위해 서울시 공무원간 협사 사건과 같이 민심을 우롱하는 이러한 저러한 조작작용뿐이었고 불법 「대선」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주모자처벌을 요구하는 인민들을 탄압하는 파쑈형 위로이였다.

그런데 이번 「세월호」 호사건을 계기로 보수당국의 무능까지 여지없이 드러나 민심의 분노는 어지없이 폭발되었다. 이런 속에서 지방자치제 선거가 고貂에 박두한 것이다.

지금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려객선 침몰 사고로

마전에 있은 여론조사에서 40%에 이르는 풍靡이 진것은 이를 보여주는 단계적 기이다.

바빠맞은 현 집권자가 눈물까지 흘리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현 총리와 측근들의 목을 묵는 『총격로법』에 매달렸으나 민심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남조선의 수백여개 각계총단체들을 망라한 『〈세월호〉 호 참사 국민대책 회의』가 결성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였지만 여당 후보가 2%, 대구시에서는 약 10%에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가하면 인천시의 경우

40대의 지지율에서 약당 후보가 33%, 경기도는 18%, 강원도는 17% 이상으로 여당 후보에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선거전문가들은 『세월호』 호참사자들 나이의 자녀들을 가진 40대가 려객선 침몰사건을 계기로 현 당국을 무능 「정권」으로 인정하면서 지난 시기와는 달리 그들에게 등을 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선거의 승패가 어떻게 되겠는지는 두고보아야 하겠지만 내외신들과 정치전문가들은 려객선 침몰사고 이후 그것이 지방자치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선거 결과에 따라 현 당국이 더욱 심각한 「정권」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평하고 있다.

『KBS』, 『MBC』, 『SBS』 등 방송 3사가 여론 조사기관 세곳에 의해 지난

17~19일 사흘동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40대에서 서울시의 경우 야당 후보가 여당 후보를 두배 이상 앞섰고 여당의 터발이라고 하는 부산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여당 후보를 2%, 대구에서는 약 10%에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가하면 인천시의 경우 40대의 지지율에서 약당 후보가 33%, 경기도는 18%, 강원도는 17% 이상으로 여당 후보에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선거전문가들은 『세월호』 호참사자들 나이의 자녀들을 가진 40대가 려객선 침몰사건을 계기로 현 당국을 무능 「정권」으로 인정하면서 지난 시기와는 달리 그들에게 등을 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선거의 승패가 어떻게 되겠는지는 두고보아야 하겠지만 내외신들과 정치전문가들은 려객선 침몰사고 이후 그것이 지방자치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선거 결과에 따라 현 당국이 더욱 심각한 「정권」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평하고 있다.

본사기자 김승철

## 초불의 대하, 악의 소굴을 대운다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17일 서울과 광주, 대구, 제주도, 경기도 안산, 경상남도 김해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세월호』 호참사를 초래한 박근혜 퇴진 운동을 규탄하는 반 『정부』 초불 투쟁이 진행되었다. 특히 서울 청계광장에서 진행된 초불집회는 『세월호』 호참사를 사고 이후 최대 규모의 초불집회인 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각이한 시민사회단체 성원들과 학자, 언론인, 대학생, 종교인, 가정주부 등 각계층이 참가한 초불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한결같이 『세월호』 호참몰사고의 진상규명과 관련 특별법 제정, 사고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어 그들은 「박근혜(대통령)은 책임자라」, 「박근혜 퇴진」 등의 구호를 웨치며 시위에 나섰다. 24일에도 서울의 청계광장에서 『제2차 범국민 초불행동』이 또다시 진행되어 박근혜 퇴진 운동과 함께 하였다.

이것은 박근혜 퇴진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알려진 것처럼 처음으로 『세월호』 호참몰사고의 진상규명과 관련 특별법 제정, 사고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감시하고 탄압하기 하였으며 초상침몰위기에 어울리지 않게 전국을 끌어들여 동족을 해칠 정치 매체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세상에 이런 물인 정하고 폐를 끼친 한 악녀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박근혜 퇴진은 지난 『대선』 시기 『국민행복시대』니, 『경제민주화』니, 『창조경제』니 하며 술한 공약들을 람발하였지만 오늘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리행하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비정규직 노동자와 실업자들만 늘어나고 천정부지로 오르는 등록금에 대학생들이 휴학이나 자살의 길을 택하지 않으면 안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퇴진은 지방자치제 선거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집회와 시위들이 당국의 무자비한 탄압을 받고 있으며 더우기 는 독재 『정권』에 차례로 것은 역사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다.

인민들의 생명과 권리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독재 『정권』에 차례로 것은 역사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다.

인민들의 목숨을 파괴하는 행위를 통해 민심을 끌어올리고 민족을 몰아내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이 『인권』을 지원하는 단체에는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

그는 서울시 장후보로 『부·인권』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 「인권」을 지원하는 단체에는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인권』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 「인권」을 지원하는 단체에는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인권』을 지원하는 단체에는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





송도원 국제소년단 애영소에서 즐거운 애영의 나날을 보내는 학생소년들

맑고 푸른 하늘가에 은은한 노래선률이 울려퍼진다.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풀겁다

손풍금소리 울려라

사람들 화목하게 사는 내

조국 한없이 좋네

...

가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한구절이다.

이 가요가 창작된지는 5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공화국인민들의 끝없는 궁지와 자부심을 노래하는 대표적 명곡으로 오늘까지도 애창되고 있다.

얼마전 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로 훌륭히 개관된 송도원 국제소년단 애영소에서 진행된 도란봉 악단의 축하공연에서도 노래 『세상에 부럼 없어라』가 울려퍼졌다.

누구나 이 노래를 들으며 온 나라 부모들의 사랑을 모두 합쳐도 비기지 못할 은혜로운 품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어린이들의 밝은 앞날에 대하여 다시금 새겨보았다.

어린이들은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는 나라,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나라가 바로 공화국이다.

어린이는 인간다움과 사랑

## 세상에 부럼없어라

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허나 이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그 어느 시대이나 사랑과 행복 속에서 살아왔고 잘 살았던 것은 아니다.

이름난 소년운동가였던 작

가 방정환은 1920년대에 나라 없는 슬픔 속에서 민족의 후대들을 끌어들이 사랑해줄 것을 원하는 꿈을 마음을 글에 담아 이렇게 썼다.

『...어린이는 어른들보다 더 높게 대접하시오.

어른은 뿌리라 하면 어린이는 짹입니다. 뿌리가 근본이라고 우에 올라앉아서 짹을 내리누르면 그 나무는 죽어버립니다. 뿌리가 짹을 위해 키워주어야 그 나무는 뻔

어나갈 것입니다. ...』

일제식민지 통치 밑에서 애

어린 짹마저 짖밟혀야 했던

조선의 어린이들이 오늘은 민족의 미래로, 나라의 왕으로 온갖 행복을 누리고 있다.

오늘의 아름다운 현실이

어떻게 마련된 것인가?

피어린 항일대전의 나날

마鞍山의 후한 속에서 혈빛은

어이들을 보시며 저 애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데 내가 백

장의 모포를 덮은 마음이 편 하겠는가고 말씀하시며 어머니의 체취가 스며있는 돈

20원 까지도 아이들의 새옷을 만드는데 쓰도록 하신 위대한

김일성 주석이시였다.

해방된 새 조선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어린이들에게 새벽 하늘에 색별 같이 빛나는 새 나라

조선의 800만 어린이여! 새해와 한가지로 새 복을 받아 굳세고 새 조선의 새 일군 되소서라고 한편의 시를 써내려 보

더 높게 대접하시오.

어른은 뿌리라 하면 어린이는 짹입니다. 뿌리가 근본이라고 우에 올라앉아서 짹을 내리누르면 그 나무는 죽어버립니다. 뿌리가 짹을 위해 키워주어야 그 나무는 뻔

어나갈 것입니다. ...』

온갖 행복을 누리고 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학생들을 축출해보다가 『미래를 사랑하라!』

라고 써주기로 결심하였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였다.

마鞍山의 모포가 전하는 사

례처럼, 첫 의정이라는 글발

이 보여주는 것처럼, 『미래

를 사랑하라!』는 구호가 보

여주는 것처럼 공화국의 어린

이들은 절세위인들의 크나큰

남조선에서 어린이들의 운명은 어떠한가.

그 누구도 보호해줄 수도 없고 품어줄 수도 지켜줄 수도 없는 메마른 땅에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사랑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오늘날 공화국의 어린이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품속에서 이 세상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큰 행복을 누려고 있다.

2년 전 조선소년단 창립 66돐 경축 행사에 참가한 소년단 대표들을

온 나라의 축복속에 높이 내세워주신 사랑으로 아

이들을 위한 친환경 유류 아동 병원도 세워주시고 도처에 현대적인 물놀이 장들과 유회 오락시설들도 건설하도록 하신

주체 98(2009)년 설날 위대한 김정일 장군께서 문

풀가들에게 안겨주신 만년필에도 아이들을 제일로 위하시

는 숭고한 후대 사랑이 비껴있다.

그이께서는 문필가들에게

줄 출만필에 어떤 글을 새

는 태양의 빛발속에 더 아름

답게 말발랄 민족의 미래를

확신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공화국은 나날이 부강해지고 통성번영 할것이며 이 땅에는 『세상에 부

럼없어라』와 같은 행복의 노래소리가 소리높이 울려펴질 것이다.

본사기자 김춘경

## 돈이 나, 인간의 생명이 나

다투는 긴박한 시각인데도 『성능검증』이요 뭐요 하며 투입조차 하지 않아 얼마든지 살릴 수 있었던 유통망은 생

명들을 바다에 수장시켰던 것이다. 사건이 일어난지 많은 시일이 지나도록 한명도 살려내지 못한 현상을 놓고 이

남국민들이 구조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것이라며 물분을 토하고 있는 것이 우연한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남당국이 제때에 대응책을 세우지 않은 리유의 하나가 구조활

동비용과 보험금 등 문제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그밖에 청진해운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 『세월』호를 고의로 침몰시켰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지 청해진 해운의 전신인 온바다해운이 2001년 보험금을 타기 위해

여객선을 고의로 침몰시켰다는 의혹이 일어났던 것도 사실이다. 51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경향이 있는데 114억원의 선체보험에 가입한 『세

월』호가 아닌가.

박근혜 정부는 배침몰 다음 날 조선당국이 취한 행동은 또 어떤가.

박근혜 정부는 배침몰 보고를 받은지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거짓말만 해내고 언론에 압박하여 거짓보도를 솟아내게 하였다. 구조

인원들을 태운 직승기는 전라남도청의 고원인 물들을 태운다고 하면서 배가 완전히 침몰된 다음에야 사고현장에 도착하게 만들었다. 혈세를 헌진하며 만든 구조함은 술

한 아이들의 생명이 부초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이 땅을 저주하며 떠나고 있는 것은 너무도 웅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남과 한지백으로

잇닿은 북에서는 어떤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가.

지난 시기 나는 고국을 여

러 차례 방문하였다. 그 나날

모든 것에 앞서 언제나 인간

을 첫자리에 놓고 인민의 생

명과 리익을 위해서라면 천

만금도 아끼지 않는 공화국

의 현실에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언제인가 신의주지구에서

큰물 피해가 난 소식을 들은

뒤를 이어서 고국에 첫 발을

딛어놓자마자 안내원에게 인

명 피해가 얼마나 났는가고 물은적이 있었다.

그 물음에 안내원은 『큰

물로 인해 인명피해가 난 것

이 아니라 오히려 인구가 늘어

나온 것이다. 이 회한한 현실은 오직 인간의 생명을 첫자리에 놓는 공화국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것이다.

고국방문의 나날 사정에

처한 평범한 한 인간의 생

명을 위해 헌신한 천민금도 아낌없

이 들어 구원해낸 전설 같은

시연들을 수없이 전해들을 수

있었다.

조개잡이를 하다가 풍랑사

나운 바다로 떠내려가던 평

범한 한 처녀를 위해 여려대

의 인민군 직승기가 동원되

여 기적적으로 구원해 낸 것

과 같은 사설을 지금까지 세계의

어디에 서도 들은적이 없다.

세계적으로 사

나운 풍랑에 의해

70여척의 크고 작은 선박이

수장되어 『죽음의 날』이라고

부르는 1980년 10월 26일 조

선동해에서 침몰 위기에 처하였다

가 기적적으로

구원해 낸 것과 같은 사설을 지금까지 세계의

어디에 서도 들은적이 없다.

세계적으로 사

나운 풍랑에 의해

70여척의 크고 작은 선박이

수장되어 『죽음의 날』이라고

부르는 1980년 10월 26일 조

선동해에서 침몰 위기에 처하였다

가 기적적으로

구원해 낸 것과 같은 사설을 지금까지 세계의

어디에 서도 들은적이 없다.

세계적으로 사

나운 풍랑에 의해

70여척의 크고 작은 선박이

수장되어 『죽음의 날』이라고

부르는 1980년 10월 26일 조

선동해에서 침몰 위기에 처하였다

가 기적적으로

구원해 낸 것과 같은 사설을 지금까지 세계의

어디에 서도 들은적이 없다.

세계적으로 사

나운 풍랑에 의해

70여척의 크고 작은 선박이

수장되어 『죽음의 날』이라고

부르는 1980년 10월 26일 조

선동해에서 침몰 위기에 처하였다